

## 예수님은 누구신가?

족보와 출생	1장	
유년시절	2장	
(세례요한)세례	3장	
사역준비/시작	4장	갈릴리 사역

## 예수님의 사역

산상수훈	5장	① 가르침
(천국의 선언서)	6장	
	7장	
치유와 이적	8장	
	9장	
제자도(천국의 사명)	10장	②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	11장	
	12장	
천국의 비유들	13장	③ 가르침
갈릴리 사역 후반	14장	
종교지도자들과 대결	15장	

## 예수님의 수난/십자가/부활

미래에 대한 전조	16장	베드로의 고백
(전환점)수난예고 ①②	17장	변화산
천국의 삶(관계)	18장	④ 가르침
논쟁, 심판들	19장	
수난예고 ③	20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1장	예루살렘 입성
심판에 관한 비유, 논쟁들	22장	
죽은 종교에 대한 심판	23장	⑤-1 가르침
예루살렘과 역사의 종말	24장	⑤-2 가르침
	25장	
유월절, 최후의 만찬, 배신	26장	겟세마네
예수의 수난과 죽음	27장	십자가
빈 무덤, 대위임 명령	28장	부활

마태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04 6번째 |

마태복음 23-25 말씀

\* 마 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16,23,25,27,29)

\* 마 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 예수님의 적대자 ② 바리새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 부릅니다.

구약의 바벨론, 페르시아 - 신약의 예수님, 로마시대 사이의 역사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 유대인 분파의 뿌리가 이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 새로운 패권을 쥔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기에 지중해로부터 동방까지 거대한 영역을 통일하고, 통치 전역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여 건축, 문화, 자연과학, 종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이후 수하의 장수들이 7개 나라를 세웁니다.

그중 유대 지역과 관련된 왕조는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하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 문화 등 헬라의 좋은 점들을 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력을 키운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하게 되면서 종교와 전통에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셀류커스는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비용을 유대인들에게 부가했으며 제사장 임명권마저 간섭했습니다. 특정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배출해 온 유대인 전통을 무시하고 뇌물을 많이 바치는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종교 사향에 매우 예민했던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정치적 반란으로 확대 해석하여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잔인한 고문과 죽음의 바람이 유대 전역에 불어 닳았습니다. 이 때 독립 전쟁까지 불사하며 끝까지 정절을 지킨 자들이 '하시딤'이라 불린 사람들입니다. 이로부터 '분리하다'란 뜻의 바리새파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종교를 엄격하게 거부했지만, 헬라 문명의 좋은 점은 선택하여 수용하는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기록된 율법만 고수했던 것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헬라 문명을 바탕으로 ‘구전 율법’을 만들어 경건생활, 정결법, 추수, 안식일, 가족의 임무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등 평민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두개인들은 기반을 잃고 세력이 급격히 저하된 반면, 바리새인들은 ‘랍비’로서 유대교를 재조직하여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없이도 율법과 회당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전율법으로 실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에 평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잦은 충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 윤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반경과 동선, 대상, ‘전공’ 분야는 바리새인의 것과 상당히 겹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성전지도자들과의 갈등 훨씬 이전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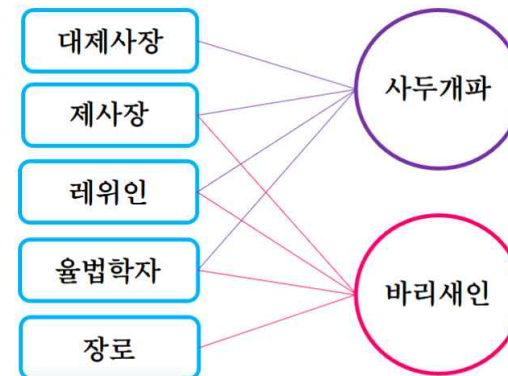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정결법 조항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도시 상인의 후손으로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가졌습니다. 사회적 언어, 종교적 언어를 능숙히 구사하던 사람으로 니고데모,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구별된 자’로서 신앙과 의로움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현명하며 지혜로운 자요 ‘소수정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위해 사람들은 랍비를 찾았습니다. 이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율법 해석과 의로움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복제품을 찍어 내는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잘못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바리새인 뿐 아니라 그들의 지도로 잘못된 길을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적이었습니다.

- 1)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음(23:3)
- 2)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자신들은 떠맡으려 하지 않음(4)
- 3) 과시하기를 좋아함(5)
- 4) 칭호와 존경 받기를 매우 좋아함(6-10)
- 5) 영혼을 위한 사역, 섬김의 사역이 아니라 경영과 힘의 논리로 대함(11-12)



\*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도널드 크레이빌, 복있는 사람

\* 성경과 5대제국, 조병호, 통독원

\* IVP BST, 성서유니온 LABC 주석